

# 익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역대최고

###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 등 16건 800억원 증액 건의

정현을 익산시장이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의 주요 인사를 방문해 국가예산 역대 최대액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 정 시장은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춘석(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배숙(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의원과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바로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산소위 소속

감석 의원, 강훈식 의원, 임종성 의원, 김현권 의원, 지상욱 의원을 만나 증점사업을 설명하면서 막판 지원을 호소했다.

시가 건의한 사업은 정부예산안에서 일부만 반영되거나 미반영 된 사업 중 추진 시나 중요성을 고려해 2020년도 국가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 환경노동사업, 문화관광사업, 국토교통사업, 농림식품사업 등 16건으로 증

액요구 규모는 총 800억원 정도이다.

먼저 환경노동사업을 살펴보면 산업안전 재해로부터 취약한 전북지역에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교육장인 △전라북도 IOT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300억원)을 비롯해 △북부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416억원) △왕궁현업축사 매입사업 및 생태복원사업(1,343억원)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100억원)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사업(510억원) 등이다.

문화관광사업 분야는 백제역사유적

지구 관광지 조성을 위한 △익산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214억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194억원) △익산고도보존 육성사업(3,419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예결위의 예산소위는 2020년 국가예산의 승부에서 최종 판가름이 나는 승부처이니 만큼 예산소위 위원에게 익산시의 핵심사업 건의와 설득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행복도시 군산시에서 지난 10월 19일 열린 제5회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이 최종 확정 발표됐다.

## 정현을 시장, 장점마을 관련 진정한 반성 있어야

### 책임 인정해야 해결 실마리 보일 것 강조

정현을 시장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에 대한 환경부 발표와 관련해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주 중국서안 출장에서 돌아온 정현을 시장은 17일 저녁, 곧바로 장점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암 발병 사태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밝혀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처절한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책임을 인정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구제 및 소송에 대응하거나 책임을 면하려하지 않고 주민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요구를 받아들인데 최선을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 익산시, 악취 저감 위한 하수관 맨홀뚜껑 교체

익산시가 하수도 악취 저감을 위해 내년까지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도 준설 및 맨홀뚜껑 교체사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하수관로 중 구배 불량으로 인한 하수슬러지 퇴적 구간, 오수 발생량이 많은 상가 밀집지역 및 우·오수 분류가 되지 않은 합류

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은 악취가 발생해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시는 어양동, 부송동, 동산동 일원 20km 구간에 대해 하수관로를 준설하고 700개소의 맨홀뚜껑을 교체한다.

또 내년에는 시가지 지역 100km 구간에 대한 하수관로 준설 및 500개

소의 맨홀뚜껑을 교체할 계획이다. 이옥섭 하수도과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환경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 군산의료원,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감염 관리 세미나

전북도 군산의료원(병원장 김영진)이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감염 관리 주간행사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군산의료원에 따르면 직원, 환자 및 내원객에게 감염관리 인식을 확산시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행사를 개최했으며 행사 기간 동안 환자 및 내원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홍보활동으로 진행

됐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올바른 손 씻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손 씻기 체험존과 휴대폰의 오염 정도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ATP 체험존, 중심정맥관 혈류 감염 예방활동, VR 체험을 통한 감염병 예방활동, 의료진의 주사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사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군산시 보건소와 함께 A형

간염 예방,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예방, 결핵 및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호흡기 에티켓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군산의료원은 다양한 감염성 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 및 예방을 위해 환자의 의뢰/회송 시 감염병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며 의료기관 간 감염관리에서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감염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원광 한의학 전문대학원 김성철 교수

### 루게릭 치료제 미국 특허 획득

원광대학교(총장 박병수) 한의학전문대학원 김성철(사진 대한회귀난치질환학회) 교수가 개발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후보 물질인 '메카신(Mecasin)'이 퇴행성 신경계 질환 예방, 개선 또는 치료하는 조성물로 미국특허를 획득했다.

김성철 교수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진행한 한방루게릭 치료제 후보 물질 '메카신(Mecasin)'은 작약, 감초, 정제부자(아코니탈, 한중제약) 등 한약재로 이루어졌으며, 국내 및 국제특허승인(PCT)을 획득하고, 2017년 미국에 특허출원을 한데 이어 올해 최종적으로 미국 특허등록 결정서를 받았다.

그동안 12편의 국제학술지에 메카신 논문을 발표하고, 한약조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미국 특허심사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추가 실험결과를 제출한 끝에 회귀질환용 루게릭치료 한약제제로는 국내 및 세계 최초로 미국특허를 받게 됐다.

김성철 교수는 "진행성 운동신경 질환인 루게릭은 발병 후 3~4년의 짧은 수명을 보이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으로 현재 치료제는 미국 FDA 및 국내 식약처 승인을 받은 리루졸(Riluzole)과 치료보조제 라디켓이 유일하지만, 수명 연장하는 효과가 2~6개월로 짧고, 약제성 간염 등 부작용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개발 동기를 밝혔다.

한편, '메카신(Mecasin)'은 효력시험을 통해 항산화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뇌신경세포 보호 및 항염증효과를 통해서 루게릭 동물모델의 생명연장 및 통증 감소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 /익산=장인천 기자

##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 발표

### 군산시·가천길 재단 총 430명 확정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행복도시 군산시에서 지난 10월 19일 열린 제5회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이 최종 확정 발표됐다.

가천길재단이 주최하고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의회, 가천대길병원, 가천대학교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유아부터 초·중·고 교학생들, 그리고 동반한 가족 등 약 1만 5천여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뤘다.

군산시와 가천길 재단(회장 이길여)에 따르면 전라북도를 비롯한 충남, 전남, 경기, 대전,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각 부문별(유·초·중·고)로 '대상·금상·은상·동상·입선' 등 총 430명 수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한껏 그리기실력을 뽐낸 이번 대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대학교 미대 교수, 미술 작가, 교육자 등 8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부문별 대상으로는 고등부-군산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수경,

군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정지우, 중등부-동원중학교 2학년 송수민, 초등부-진포초등학교 4학년 심지은, 용문초등학교 5학년 이은새, 유아부-일곱빛깔무지개유치원 최서우 등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총평을 통해 "나의 꿈이란 주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다"며 "도화지에 펼쳐진 해맑은 꿈들이 실현되어 밝고 희망찬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이번 대회 수상자들에게는 별도의 시상식 없이 상장과 가천문화재단이 제공하는 부상이 수여되고 수상작들을 엮은 작품집도 기념으로 함께 제공되며 수상자 명단(www.gach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작품은 전북 대학교 미대 교수, 미술 작가, 교육자 등 8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강연회 개최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시민강연회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22일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에서 '사회적경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지역의 역할'을 주제로 시민 강연회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도내 사회적경제

역 종사자와 단체,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준비됐다.

이번 강연회를 주관하는 군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올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현재 지역 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